

# 한국가계의 소비수준 및 표준: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의 실현 모색\*

## Korean Households' Level and Standard of Consumption: For Developing Sustainable Lifestyle

대전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벤처산업학전공  
부 교수 손상희

Venture Business for Children Major, Division of Living Science, Daejeon University  
Associate Prof.: Sohn, Sanghee

### 〈목 차〉

- |                  |            |
|------------------|------------|
|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의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households' level and standard of consumption and their related variables in order to derive some useful implications for developing sustainable lifestyle. Data were collected from 567 household wives living in Seoul and the five Metropolitan cities in Korea. The results showed that most households owned such goods as central heating system, shower and bath, refrigerator, microwave oven, vacuum cleaner, washer, TV, video player, personal computer, mobile phone, and car. They thought that most of the goods were necessary for the desired level of living and had a strong aspiration to buy those goods. This implied a tendency of uniformity in need perceptions and consumption patterns among Korean households. However, level and standard of consumption measured in selected living area differed according to age, education, family size, household income, occupation, and the size of housing, which showed that different approach was needed for developing sustainable lifestyle according to these variables.

◆ 주요어: 소비수준, 소비표준, 지속가능한 소비, 단순·소박한 생활양식, 소비주의적 생활양식

\* 이 논문은 1999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99-D00489).

##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산업사회의 발달과 함께 동반해 온 생태계 혹은 환경의 위기문제에 대한 인식은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논의를 증가시켜 왔다. 지속가능한 소비, 다시 말해 '지구환경의 제한 속에서도 수많은 세대들을 통해 지속할 수 있는 삶의 방식'(Durning, 1994, 150-151)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는 1992년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리우 회의에서는 지구환경파괴의 주된 요인으로 과도한 생산의 문제와 더불어 선진국의 낭비적인 소비패턴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실천강령인 의제21에 '환경문제를 완화하고 기본생활요건을 충족하는 소비와 생산패턴으로의 전환'을 그 하나로 포함시켰다. 이 의제21의 이행상황을 점검, 독려하기 위해서 1993년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가 설치되었고, 1994년과 1995년 오슬로에서 지속가능한 소비에 관한 심포지엄과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하여, '소비패턴전환을 위한 지역공동체 차원의 전략개발'을 실천전략의 하나로 삼는 등, 지속가능한 소비의 실현을 위한 전세계적 노력이 확산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친화적 소비, 녹색소비, 혹은 지속가능한 소비 등이 환경단체나 소비자운동단체의 캠페인, 정부의 정책과 홍보, 언론 보도 등의 영향으로 점차 귀에 익은 용어가 되어가고는 있지만, 아직 사회 전체적인 이슈로까지 발전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그간 쓰레기종량제, 재활용마크표시제, 환경마크제의 도입 등 정부정책적 노력이 있었고, 1996년 이후 많은 민간단체들이 녹색소비자운동을 주요 사업계획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대부분 재활용이나 쓰레기 감량과 같은 소비자의 사용과 처분행동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등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실천전략의 모색이 부족한 형편이다(강성진, 1996; 손상희, 1997a; 이득연, 1991).

오늘날의 사회는 소비를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삼을 뿐 아니라, 소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소비를 타인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로 삼는 소비주의사회로 일컬어지고 있다(손상희, 1997b; 임성희, 1994). 이러한 사회에서는 생활과 문

화를 구성하는 요소의 많은 부분이 상품화되어 오로지 소비행위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소비가 가능하려면 친환경적 사용과 처분행동의 실천 이전에 폐기물의 발생원인인 재화의 '소유'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끊임없는 소유에 대한 갈망이 소비사회의 생활양식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때, 소비주의 생활양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소비는 자원의 증감에 따라 변화하는 경제행위로서 뿐만 아니라 많은 점에서 사회문화적인 고려에 의해 형성되고 촉진되며 구속받는다. 제도학과 소비경제학자들은 소비가 사회체제와 상호의존적이고 개인의 필요와 선호가 사회문화적인 가치체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중요시하여, 소비행동에 지속성과 일관성을 주는 특정한 소비패턴, 나아가서 생활양식을 형성하는 기초로 '표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이 집단규범을 형성하고, 이러한 규범이 소비의 표준으로 작용하여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삶의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표준은 한 사회 내에서 집단적으로 추구되는 것이며, 개인의 소비행동을 결정하는 원동력이자 특정 생활양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게 된다(Baudrillard, 1970; Hoyt, 1938; Kyrk, 1923; McCracken, 1988; Nicosia & Mayer, 1976).

이러한 맥락에서 생활양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가계의 소비수준 및 표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는 이에 주목하고자 한다. '얼마만큼 가져야 충분한가?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소비수준, 즉 소비의 표준은 무엇인가?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소비는 무엇인가? 소비생활 수준을 조금 낮추더라도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활양식은 존재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이 같은 질문은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으로의 전환을 추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소비자들이 어떤 답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의 실현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가계들의 현재의 소비수준과 도달하기 위해 갈망하는 소비표준이 무엇이며, 관련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변화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의 고찰

### 1. 소비표준 연구

사회체계 내에서의 소비자행동이나 소비패턴 연구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사회학에서 또한 제도학과 소비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제공되어져 왔다(Baudrillard, 1970; Hoyt, 1938; Kyrk, 1923, 1933; McCracken, 1988; Nicosia & Mayer, 1976; Veblen, 1934). 이들은 소비자행동을 사회문화적인 체계에 의해 규제 받는 것으로 보고, 또 그 가치체계에 의해 소비자의 만족/불만족이 결정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사회적으로 형성된 표준(혹은 규범)이 소비자의 선택행동과 특정한 생활양식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는 틀이 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소비표준은 개인이 시간과 돈의 지출을 통해 꼭 갖기를 고집하는 것이며, 막연하게 원하는 이상적인 것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매일 내리는 선택을 무의식적으로 좌우하는 힘이라고 믿어진다. 소비자가 특정 재화를 소비표준의 내용으로 포함하는 것은 그 재화의 소비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표준을 연구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행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소비표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많지 않다. 예컨대 Suranyi-Unger(1977)는 동일한 소비의 '표준묶음(standard package)'을 가진 표준계층의 존재에 대해 연구하였다. 1960-61년 가계소비지출 자료를 이용하여 소비지출방식에 있어서 유사한 집단을 규명한 결과, 미국 사회에서는 직업에 따라 전문직계층과 노동직계층의 소비양식이 다르며, 이들은 각각의 직업계층 내에서 공통적인 소비양식을 고수하는 대표적인 두 개의 표준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예로, 미국 노동통계국에서는 4인 가계의 총소비지출 수준의 중앙치를 미국 사회에서 전형적인 가족의 생활표준이라고 보고, 이를 '보편적 가족표준(Prevail-

ing Family Standard)'라고 하였다(Hefferan, 1987). 이러한 연구들은 표준이 현재 소유 또는 소비하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을 포함하는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소비된 재화의 수준을 나타내는 소비규모를 소비표준과 동일시함으로써 수준과 표준을 구분하지 못하였다.

Firat(1978)은 현대 미국사회의 지배적 소비패턴을 '개인적-사적-수동적(individual-private-passive) 소비패턴'으로 개념화하였다. 즉 소비행위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와 재화의 공동사용을 위한 가용성, 그리고 인간의 활동이 최소화된 소비패턴이다. 이러한 소비패턴은 편의식품이나 냉동식품의 사용과 세탁기, 의류건조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의 개인가계에서의 소유, 그리고 오디오, 라디오, TV 등과 같은 수동적 여가활동을 위한 재화의 소유 등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재화들의 소유 및 사용의 증가로 인해 '개인적-사적-수동적 소비패턴'이 더욱 지배적인 것이 된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가계들의 소비패턴이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상관없이 지배적인 소비패턴에 일치되어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1960-61년 가계지출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미국 가계는 소비항목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일치되고 있으나 각 소비항목의 소비지출패턴에 있어서는 가계소득, 직업, 교육수준과 인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연구에서 제기된 가설을 온전히 입증하지는 못했으나, Firat은 이것이 지배적인 소비패턴에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 후의 연구에서 Firat(1987)은 미국 사회의 지배적인 소비패턴을 '개인적-사적-소외적-수동적(individual-private-alienated-passive) 소비패턴'으로 개념을 발전시키고, 240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22개 재화에 대해 이러한 소비패턴을 나타내는 정도를 도표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이 연구는 오늘날 대부분의 가계에서 소유하고 있고 또 소유하려고 하는 승용차, 세탁기, 전자레인지, 컴퓨터, TV, 비디오 게임, 의류건조기 등이 특히 '개인적-사적-소외적-수동적 소비패턴'을 나타내는 재화로 인식됨을 밝혔다. 따라서 미국 사회는 점점 더 이러한 성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것은 개인적인 소비자행동만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조명해주는 사회적 영향력으로 작용하고 생활의 모든 면에서 영향을 주게 된다고 결론지었다.

소비표준 및 생활표준에 관한 국내연구로는 윤정혜·성영애(1998), 김기옥(1997), 손상희·박정현·천경희(1999)의 연구가 있다. 윤정혜·성영애(1998)는 1991, 1993, 1995년의 한국가계의 소비지출구조를 일본과 미국의 소비구조와 비교하여 진단하고, 이를 통해 경제위기 속에서의 한국가계의 소비표준 설정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실제 소비표준에 관한 연구가 아니고 바람직한 소비표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제기 형태의 연구이다.

김기옥(1997)은 연구대상이 직접 이야기를 엮어나가도록 하는 설화법을 사용하여, 미국에 단기 방문한 한국인 12명을 대상으로 소비생활이야기에 나타난 생활표준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조사대상자들이 한국인들의 귀국준비 재화의 품목과 상표가 거의 일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동조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밝히면서, 우리나라 소비자가 생활표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집단동조의식과 체면의식이 강하게 작용함을 지적하였다. 손상희 외 2인(1999)은 대전시 중산층 30대와 40대 주부 31명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하여, 거실과 부엌을 중심으로 재화의 소유에 대한 현황과 열망정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재화가 무엇인지에 관해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으나, 사람들이 남편의 지위나 아파트평수 등의 생활수준에 따라 갖추어 놓는 재화의 수준이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다. 김기옥과 손상희 외 2인의 연구는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생활표준의 획일적인 경향과 생활표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사회문화적인 요소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생활표준의 실제적 규명을 시도한 소수의 연구로서 생활표준에 대한 세밀한 이해를 제공하고 있으나, 질적 연구의 한계점으로 인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있어서 다소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생활표준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양적 방법 등을 이용한 후속연구들이 매우 필요하다.

## 2. 소비와 환경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편, 후기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소비와 환경간의 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몇몇 연구들은 소비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총체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Uusitalo(1982)는 가계 소비패턴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는 서구적 소비패턴의 세 가지 특징을 현대성, 고급성, 이동성으로 규명하고, 이러한 소비패턴이 가계 폐기물, 에너지 사용, 오염, 자원고갈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대리지표들을 사용하여 실제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서구적 소비패턴이 더 발달하면 할수록, 즉 가공제품 및 시간절약적 재화의 사용증가와 가정생산의 감소, 구매력과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한 소비의 다양화와 고급화, 그리고 자동차의 소유증가가 심화될수록,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수행된 네덜란드 정부지원 HOMES(Household Metabolism Effectively Sustainable) 연구프로젝트는 가계소비와 관련된 물질의 투입과 산출에 대하여 '가계 신진대사 모델(household metabolism framework)'로 설명하고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가계는 자연의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재화의 소비를 통해 그 에너지를 간접적으로 사용하며, 이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은 환경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으로, 한 사회체계 내의 에너지와 물질의 흐름의 맥락 속에서 가계소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갖도록 한다(Norman, Biesiot, & Uiterkamp, 1998). 같은 프로젝트의 하나로 Gatersleben과 Vlek(1998)은 가계의 소비가 어떠한 삶의 질 가치를 이루기 위한 것인지, 또한 가계소비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어떠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소비행동을 하려는 소비자들의 의도는 어떠한지 등을 실증적으로 조사하였다. 실증연구에 앞서 이론적 모델로 설정한 필요·기회·능력(NOA: Needs-Opportunities-Abilities)모델은 소비자행동이 소비자의 필요, 기회, 능력의 결과임을 기본전제로 하였다. 소비자의 필요가 존재하고 그 필요를 물질적으로 충족시킬 기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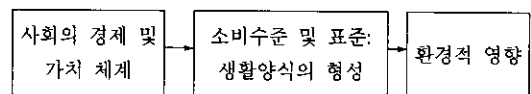
있을 때 소비자들은 재화의 구매동기를 갖게 되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구매할 수 있는 적합한 기회(예컨대 재화를 살 수 있는 장소)와 능력(예컨대 충분한 돈)이 있을 때 구매가능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NOA모델은 필요, 기회, 능력과 소비행동이 기술, 경제, 인구통계, 조직, 문화와 같은 사회적 맥락의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소비행동의 결과가 삶의 질 혹은 환경의 질을 결정짓는다는 총체적인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네덜란드의 가계들은 기회와 능력이 되는 한 재화를 구매하려고 하며, 소유하고 있는 재화를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재화를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가계소비의 환경적 영향을 잘 인식하고 있으나 재화의 사용 및 소유 측면에서 개선의 노력을 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사회에서는 현대 소비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적 생활양식으로 부각되고 있는 '자발적 간소화 생활양식(Voluntary Simplicity Lifestyle)'에 대한 연구가 최근 이어지고 있다. 자발적 간소화 생활양식은 삶의 목적을 단일화하여 그 목적을 이루는 데 관계없는 과도한 물질의 소유를 회피하고, 내적 성실함과 정직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단순·소박한 생활양식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로 자발적 간소화 생활양식이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확산되어 현재 주류계층의 생활양식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고찰(Spina, 1998), 자발적 간소화 생활양식의 특징 및 철학에 관한 연구(Elgin, 1993), 자발적 간소화 생활양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결정적 요인에 관한 연구(Nolen, 1994)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Nolen은 자발적 간소화 생활양식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크게 세 가지 측면, 즉 도덕적, 환경적, 경제적 이유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자발적 간소화 생활양식을 택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 이유보다는 도덕적이거나 환경적 이유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혔다.

### III.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1. 연구내용

소비행동과 사회의 경제 및 가치 체계와의 상호의존성에 핵심적 논지를 두고 있는 제도학과 이론(예컨대 Kyrk, 1923; Hoyt, 1938)과, 소비행동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실증연구들(예컨대 Uusitalo, 1982; Gatersleben & Vlek, 1998)은 본 연구의 기본이 되는 개념적 모델을 제공한다. 가장 단순화한 모델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관계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가계의 소비수준 및 표준 파악

본 연구에서는 여러 학자들(Davis, 1945; Hoyt, 1938; Kyrk, 1923)의 정의에 따라 소비수준을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하거나 경험하는 재화의 집합'으로, 소비표준을 '원하는 생활양식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거나 강렬하게 회구하는 재화의 집합'으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정생활을 여섯 가지 소비영역, 즉 주생활, 식생활, 가족위생, 가족여가, 정보생활 및 이동영역으로 나누어,

첫째, 가계의 소비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선별된 재화의 보유수준을 조사하였다.

둘째, 가족이 원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재화와, 현재는 없으나 언젠가는 꼭 갖고 싶다고 한 재화의 집합을 소비표준으로 보고, 보유 또는 비보유 재화에 대한 필수재 인식정도와 비보유 재화에 대한 열망정도를 조사하여 가계의 소비수준을 파악하였다.

#### 2) 관련요인 분석

본 연구는 집단이나 사회적 한계 내에서 추구되는

소비가치들로 인해 특정한 표준이 형성된다고 보는 Kyrk(1923)와 Hoyt(1938)의 이론과, 소비자의 기본욕구, 재화구매와 관련된 기회, 그리고 구매력 및 시간, 공간 등의 능력에 따라 소비행동이 결정된다고 보는 Gatersleben과 Vlek(1998)의 필요·기회·능력(NOA) 모델을 근거로, 소비수준 및 표준에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문화적인 체계로서의 직업과 교육수준, 가계의 요구를 반영한다고 생각되는 가구주연령과 가족수, 재무적 능력을 나타내는 가계소득과 재무 및 공간적 능력을 나타내는 주택평수에 따라 소비수준 및 표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 3)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변화가능성 분석

가계가 영위하고 있는 소비수준 및 표준은 환경의 질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지속가능한 소비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소비수준 및 표준이나 생활양식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들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선행되고, 또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뒤따라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변화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단순·소박한 생활양식에 대한 태도와 소비주의적 성향을 조사하고 관련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소비수준 및 소비표준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단순·소박한 생활양식에 대한 태도는 Nolen(1994)에 근거하여 단순·소박한 생활양식의 이유에 관한 3문항과 선호여부, 그리고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희망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소비주의적 성향은 소비주의문화를 개념화한 손상희(1996, 1997b)와 생활표준의 영향요인으로 집단동조 의식과 타인지향적, 지위지향적인 사회문화적 영향력의 중요성을 밝힌 김기옥(1997), 손상희 외 2인(1999)을 바탕으로 이웃, 남편의 지위, 집평수에 대한 의존정도와 물질주의적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2.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도시 가계로 국한하였다. 이는 도시와 농촌은 사회문화적 체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그에 따른 편차를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표본은 서울특별시 및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가계를 대상으로 하되, 지역과 소득수준, 연령 등을 고려한 확률층화추출법으로 표집하였다. 지역별로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200가구,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로부터 각각 100가구,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로부터 각각 90가구씩을 표집하였고, 부실 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567개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는 2001년 1월 5일~20일 사이에 가계를 대표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를 기본으로 한 면접법으로 수집하였다.

### 2)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과 같은 기술통계와 함께, 변수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분할표분석, 분산분석, Pearson의 상관분석 등으로 통계처리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가계의 소비수준과 소비표준

#### 1) 소비수준: 재화의 보유수준

현재의 소비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각 소비생활영역별로 38종의 재화목록에 대하여 보유여부를 조사하였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사대상 가계의 약 80% 이상이 주생활영역의 중앙난방/보일러, 욕조시설, 식탁을 갖추고 있었고, 식생활영역에서는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가족위생영역에서는 진공청소기와 세탁기, 가족여가영역에서는 TV와 비디오, 정보생활영역에서는 컴퓨터와 휴대전화, 이동영역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중앙난방/보일러, 욕조시설, 식탁, 냉장고, 전자레인지, 진공청소기, 세탁기, TV, 비디오, 컴퓨터, 휴대전화, 승

〈표 1〉 재화의 보유수준과 필수재/열망재 인식정도

(%)

소비생활 영역	재화의 종류	재화의 보유수준 (소비수준)	필수재/열망재 인식정도 (소비표준)			Phi 계수
			전체	보유하고 있는 경우 <sup>a</sup>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sup>b</sup>	
주생활	중앙난방/보일러	91.8	80.4	77.2(84.0)	3.2(39.1)	0.31
	에어컨	43.7	66.5	34.2(78.5)	32.4(57.4)	0.22
	용접세트(소파)	64.2	61.1	43.4(67.7)	17.7(49.3)	0.18
	원목마루	19.7	33.8	8.9(45.1)	25.0(31.1)	0.12
	카페트	48.1	28.5	20.7(42.9)	7.8(15.1)	0.31
	콘솔웨건	18.4	18.2	7.3(39.8)	11.0(13.4)	0.26
	침대	79.0	62.5	53.5(67.6)	9.0(43.2)	0.20
	거실보조조명/상드리에	37.2	26.9	17.2(46.2)	9.7(15.5)	0.34
	욕조시설	81.9	74.2	63.5(77.5)	10.6(58.8)	0.16
식탁	79.7	67.3	57.0(71.4)	10.3(50.9)	0.18	
식생활	가스오븐	44.0	51.5	27.6(62.9)	23.9(42.6)	0.29
	식기세척기	18.6	45.3	11.3(61.0)	34.0(41.7)	0.15
	냉장고(450 / 미만)	30.0				
	냉장고(450 / 이상)	69.8				
	냉장고(전체)	99.1	81.2	80.7(81.3)	0.5(75.0)	0.11
	김치냉장고	30.2	64.4	19.7(65.3)	44.8(64.1)	0.01
	독립냉동고	8.6	20.0	4.4(51.0)	15.6(17.1)	0.24
	전자레인지	86.7	60.5	54.7(63.1)	5.8(44.0)	0.13
	커피메이커	56.8	33.6	25.5(44.9)	8.1(18.9)	0.27
믹서/푸드프로세서	67.2	35.2	31.2(46.3)	4.1(12.4)	0.33	
가족위생	진공청소기	90.9	75.6	69.6(76.3)	6.0(68.0)	0.06
	세탁기	99.1	81.9	81.2(81.8)	0.7(100.0)	-0.04
	전기의류건조기	6.3	17.9	2.3(37.1)	15.6(16.6)	0.13
가족여가	칼라TV(25인치 미만)	32.8				
	칼라TV(25인치 이상)	68.8				
	칼라TV(전체)	98.8	80.4	79.8(80.7)	0.5(50.0)	0.15
	비디오	90.9	62.7	59.7(65.4)	3.0(34.0)	0.19
	오디오	73.7	59.3	46.2(62.6)	13.1(50.0)	0.11
	비디오카메라	24.4	51.2	12.6(51.8)	38.6(50.9)	0.01
	유선방송/위성TV	63.3	45.5	36.8(57.8)	8.7(23.9)	0.33
실내운동기구	23.7	46.7	13.3(56.0)	33.5(43.9)	0.10	
정보생활	컴퓨터(486PC 이하)	16.1				
	컴퓨터(586PC 이상)	67.9				
	컴퓨터(전체)	83.2	80.2	68.1(81.7)	12.0(72.3)	0.11
	팩스	10.5	21.6	5.5(53.5)	16.1(18.0)	0.26
	휴대전화	93.2	76.3	71.9(76.9)	4.4(67.6)	0.05
PC통신/인터넷	69.1	71.7	55.6(80.3)	16.1(52.3)	0.29	
이동	승용차(경차)	6.8				
	승용차(소형)	33.2				
	승용차(중형)	43.7				
	승용차(대형)	9.5				
	승용차(전체)	84.2	85.1	73.6(84.4)	11.5(73.0)	0.17

<sup>a</sup> ( )은 그 재화를 보유하고 있는 전체 응답자에 대한 백분율임.

<sup>b</sup> ( )은 그 재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전체 응답자에 대한 백분율임.

용차는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대부분이 향유하고 있는 소비수준을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나라의 대다수 도시가계에 있어서 90%이상 보유하고 있는 냉장고, 세탁기, TV와 같은 기본적인 재화의 소비뿐만 아니라 컴퓨터, 휴대전화, 승용차와 같은 정보생활과 이동영역에서의 재화의 소비가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가계들도 Firat(1987)과 Unsitalo(1982)가 지적한 현대 소비패턴의 특징인 '개인적-사적-소외적-수동적' 소비패턴과 '현대-고급-이동적' 소비패턴을 대표하는 재화들을 보편적으로 소비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소비패턴 및 생활양식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냉장고, TV, 컴퓨터, 승용차에 대한 소비는 크기와 종류에 있어서 다양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약 2/3는 대형 냉장고와 대형 TV, 그리고 586이상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었고, 약 80%의 가계가 중형과 소형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경제력이나 가족의 요구, 혹은 가치관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 더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한편 원목마루, 콘솔/웨건, 식기세척기, 독립냉동고, 전기의류건조기, 팩스는 조사대상자의 20%미만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재화는 일부의 가계만이 향유하고 있는 소비문화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재화라고 볼 수 있다. 나머지 재화는 20%이상 80%미만의 가계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이에 따라 소비수준이 다를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한다.

## 2) 소비표준: 필수재 혹은 열망재로 여겨지는 재화의 집합

소비표준을 분석하기 위해 두 가지 질문을 하였다. 첫째는 소유여부에 상관없이 "가족이 원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재화"를 모두 선택하도록 하였고, 둘째는 "현재는 없으나, 언

젠가는 꼭 갖추고 싶은 것"을 모두 고르도록 하였다. 즉 원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 꼭 갖추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필수재와 앞으로 꼭 갖추고 싶다고 바라는 열망재의 집합<sup>1)</sup>이 소비표준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질문의 응답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었다.

<표 1>을 보면 대부분의 재화에 대해서 소비수준에 비해 소비표준은 다소 낮게 나타나, 80%이상의 가계가 필수재 혹은 열망재로 꼽은 재화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해 훨씬 적었다. 가장 많은 가계가 소비표준에 포함하는 재화는 승용차였으며, 다음으로 세탁기, 냉장고, 중앙난방/보일러, TV, 컴퓨터의 순으로, 이는 대부분의 가계가 꼭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각 생활영역을 대표하는 재화라 볼 수 있다. 또한 보유가계와 비보유가계의 필수재/열망재 인식정도를 괄호 안에 제시한 수치를 통해 살펴보면 모두 높게 나타나, 이러한 재화들은 우리나라 가계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비표준을 구성하는 재화임을 시사한다. 승용차와 컴퓨터에 대한 필수재 혹은 열망재로서의 높은 인식은 Firat(1987), Unsitalo(1982) 등이 지적했듯이 시간절약적 이동을 중시하는 현대적이고 개인지향적인 생활양식과 또 정보사회에 대한 인식이 우리 사회에 보편적으로 확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특징적인 현상이라 보여진다. 20%미만의 가장 적은 가계가 필수재 혹은 열망재로 꼽은 재화는 콘솔/웨건과 전기의류건조기였다.

소비표준이 소비수준을 상회하는 재화는 에어컨, 원목마루, 가스오븐, 식기세척기, 김치냉장고, 독립냉동고, 전기의류건조기, 비디오카메라, 실내운동기구, 팩스, PC통신/인터넷, 승용차였다. 소비수준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열망정도를 나타낸 가스오븐과 PC통신/인터넷, 승용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재화들에 대한 소비표준은 소비수준에 비해 10~34%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러한 재화를 보유하지 않은 가계의 소유에 대한 강한 열망을 나타내

1) 엄밀히 말해서 공집합으로 측정하였다. 가족이 원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현재는 없으나, 언젠가는 꼭 갖추고 싶다고 할 때 그것은 소비표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았다.



는 것이라고 하겠다.

〈표 1〉에 제시된 Phi계수는 재화의 보유여부와 필수재/열망재 인식여부와 관계가 나타낸 것이다.<sup>2)</sup> 가장 높은 상호관계를 보인 것은 거실보조조명/상들리에, 믹서/푸드프로세서, 유선방송/위성TV, 중앙난방/보일러, 카페트의 순으로 Phi값이 0.3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재화들은 0.30미만의 약한 관계를 보였다. 즉 소비수준이 높을수록 소비표준이 꼭 높은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어떤 재화를 보유하고 있는 가계가 그 재화를 꼭 필수재/열망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부분의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기본적인 재화의 경우에는 Phi값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 있고, 그 외의 다른 재화들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의 열망정도가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소비표준이 소비수준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해서 현재의 소비수준이 충분하여 앞으로 변화가 없거나 축소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재화를 보유하고 있는 가계가 그 재화를 원하는 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인식할지라도 그 재화 없이 생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은 아니라고 볼 때, 〈표 1〉에서 소비표준으로 나타난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실제로 그 영향력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앞으로 그 재화를 소유한다고 볼 때 장래 우리나라 가계의 총체적 소비수준은 최소한 보유하지 않은 가계의 열망부분만큼 더 상승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 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른 소비수준과 소비표준의 차이

〈표 2〉와 〈표 3〉은 가구주연령, 교육수준, 가족수, 가계소득, 직업 및 주택평수에 따라 가계의 소비수준 및 소비표준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2〉에 제시된 모든 사회경제적 변인은 가계의

총체적인 소비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생활영역별 소비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부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소득은 모든 생활영역의 소비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밝혀졌고, 구체적으로 250만원이상과 250만원미만 가계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가계의 소비수준은 무엇보다 가계의 재무적 능력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소비생활영역별로 보면, 가구주연령은 대체로 40대 이상이 30대 이하인 경우에 비해 주생활, 식생활, 정보생활에서의 소비수준이 높았다. 가구주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인 가계와 고졸이하인 가계의 소비수준이 주생활, 식생활, 정보생활, 이동영역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대졸이상인 경우 소비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족위생과 가족여가영역의 소비수준은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가구주 직업의 효과는 주로 노무자와 기타 직업간의 차이로 나타났다. 단, 식생활영역에서는 전문관리직의 소비수준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영업, 사무기술직, 노무자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위생, 가족여가, 정보생활영역에서의 소비수준은 가구주 직업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가족수에 있어서는 4명인 가계가 2~3명인 가계에 비해 식생활, 가족위생영역에서 더 높은 소비수준을 나타내었다. 주택평수의 효과를 보면 대체로 40~50평이나 30~40평인 가계의 소비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20평미만의 소비수준이 가장 낮았다. 50평이상의 가계가 가장 높은 소비수준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표 3〉에서 보면 총체적인 소비표준 점수는 가구주연령, 직업, 가계소득, 주택평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생활영역별로 보면 주생활영역을 제외하고는 가구주연령과 가계소득 외의 다른 변인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주생활영역의 소비표준은 가족수를 제외한 모든 변인, 즉 가구주연령, 교육수준, 직업, 가계소득, 주택평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Phi계수는 2×2 분할표분석에서 0~1의 값을 가지며 관계의 강도가 클수록 값이 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두 변수 간 관계의 유무 및 관계의 강도까지 반영해주는 측정치이다(홍두승, 1992).

〈표 2〉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소비수준의 차이

소비 생활 영역	가구주연령		가구주교육수준		가구주직업		가족수		가계소득		주거평수										
	평균	30대 이하	고졸 이하	대졸 이상	노무자	자영업	사무	전문	2-3명	4명	5명	150만 미만	150-250만	250-350만	350만 이상	20평 미만	20-30평	30-40평	40-50평	50평 이상	
주생활	5.64	4.78-6.26 C A B	5.71 21.72***	5.91 4.58*	5.25 5.85	5.73 5.91	5.73 6.03	4.68**	5.09 5.87	5.66 5.19**	5.32 6.08	6.08 5.99**	5.32 6.08	6.08 5.99**	5.99**	4.62 5.46	6.11 6.39	5.82 5.82	10.19***		
식생활	4.12	3.58-4.45 B A A	4.25 14.96***	4.10 6.17**	3.81 4.34	4.10 6.17**	3.92 4.45	5.97***	3.82 4.30	4.02 4.17*	3.72 4.40	4.50 7.01***	3.72 4.40	4.50 7.01***	7.42***	3.54 4.03	4.47 4.58	3.90 3.90	7.42***		
가족 위생	1.97	1.93-1.98 A A A	2.00 1.63	1.97 0.01	1.88 1.99	1.99 2.00	2.00 2.04		1.90 2.00	1.95 3.38*	1.90 2.03	2.02 4.07**	1.90 2.03	2.02 4.07**		1.91 1.95	2.00 2.01	1.98 1.25			
가족 여가	3.79	3.64-3.85 A A A	3.86 1.79	4.00 2.86	3.59 3.79	3.75 3.91	1.47		3.67 3.84	3.76 0.87	3.76 3.93	4.01 4.98**	3.76 3.93	4.01 4.98**		3.62 3.68	3.90 3.99	3.76 1.72			
정보 생활	2.57	2.33-2.75 B A A	2.59 9.88***	2.53 5.20**	2.41 2.69	2.53 5.20**	2.52		2.31 2.72	2.50 9.33***	2.43 2.78	2.73 5.93***	2.43 2.78	2.73 5.93***		2.38 2.54	2.71 2.66	2.55 2.40*			
이동	0.93	0.90-0.96 A A A	0.93 0.66	1.05 3.17*	0.78 0.97	0.91 0.99	4.22**		0.93 0.94	0.91 0.10	0.81 1.04	1.01 5.97***	0.81 1.04	1.01 5.97***		0.85 0.95	0.95 0.97	0.90 0.98			
소비 수준 전체	19.02	17.15-20.24 B A A	19.35 17.09***	19.57 6.29**	17.19 19.27	18.69 20.06	6.06***		17.73 19.68	18.80 5.99**	17.94 17.85	20.27 9.50***	17.94 17.85	20.27 9.50***		16.91 18.61	20.15 20.61	18.92 8.26***			

\*p < .05, \*\*p < .01, \*\*\*p < .001 에서 유의

〈표 3〉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소비표준의 차이

소비 생활 영역	가구주연령		가구주교육수준		가구주직업		가족수		가계소득		주거평수					
	30대 이하 n=178	40대 이상 n=233	고졸 이하 n=203	대졸 이상 n=303	노무직 n=95	자영업 n=143	사무 n=144	전문 n=182	2-3명 n=132	4명 이상 n=305	150만 미만 n=106	150-250만 이상 n=119	20평 미만 n=117	30-40 n=149	40-50 n=168	50평 이상 n=51
주생활	5.16	4.34 5.71 5.26 B A A	4.74 5.37 5.48 B A A	4.16 5.20 5.06 5.73 6.58*** B A A A	4.16 5.20 5.06 5.73 6.58*** B A A A	4.79 5.39 4.99 2.34 4.79 5.39 4.99 2.34	4.70 4.71 5.50 5.82 5.87*** B B A A	4.70 4.71 5.50 5.82 5.87*** B B A A	4.60 5.02 5.75 4.98 5.20 3.15* B AB A AB AB	4.60 5.02 5.75 4.98 5.20 3.15* B AB A AB AB						
식생활	3.89	3.35 4.38 3.78 B A B	3.67 3.97 4.28 2.12 3.67 3.97 4.28 2.12	3.40 3.94 3.77 4.22 3.04* B AB AB A	3.40 3.94 3.77 4.22 3.04* B AB AB A	3.74 4.04 3.69 1.49 3.74 4.04 3.69 1.49	3.63 3.62 3.98 4.38 3.90** B B AB A	3.63 3.62 3.98 4.38 3.90** B B AB A	3.64 3.84 4.28 3.64 3.76 1.96 3.64 3.84 4.28 3.64 3.76 1.96	3.64 3.84 4.28 3.64 3.76 1.96 3.64 3.84 4.28 3.64 3.76 1.96						
가족 위생	1.74	1.52 1.89 1.79 B A A	1.69 1.75 1.90 1.28 1.69 1.75 1.90 1.28	1.60 1.77 1.67 1.86 2.27 1.60 1.77 1.67 1.86 2.27	1.60 1.77 1.67 1.86 2.27 1.60 1.77 1.67 1.86 2.27	1.65 1.82 1.65 2.80 1.65 1.82 1.65 2.80	1.69 1.54 1.83 1.99 8.22*** BC C AB A	1.69 1.54 1.83 1.99 8.22*** BC C AB A	1.75 1.66 1.86 1.65 1.73 1.34 1.75 1.66 1.86 1.65 1.73 1.34	1.75 1.66 1.86 1.65 1.73 1.34 1.75 1.66 1.86 1.65 1.73 1.34						
가족 여가	3.44	3.12 3.77 3.29 B A B	3.38 3.49 3.34 0.27 3.38 3.49 3.34 0.27	3.07 3.35 3.60 3.56 1.97 3.07 3.35 3.60 3.56 1.97	3.07 3.35 3.60 3.56 1.97 3.07 3.35 3.60 3.56 1.97	3.31 3.55 3.28 1.38 3.31 3.55 3.28 1.38	3.33 3.21 3.72 3.59 2.40 3.33 3.21 3.72 3.59 2.40	3.33 3.21 3.72 3.59 2.40 3.33 3.21 3.72 3.59 2.40	3.47 3.29 3.77 3.06 3.27 2.57* AB AB A B AB	3.47 3.29 3.77 3.06 3.27 2.57* AB AB A B AB						
정보 생활	2.49	2.21 2.72 2.44 B A B	2.42 2.55 2.36 1.07 2.42 2.55 2.36 1.07	2.32 2.42 2.46 2.65 1.89 2.32 2.42 2.46 2.65 1.89	2.32 2.42 2.46 2.65 1.89 2.32 2.42 2.46 2.65 1.89	2.31 2.61 2.36 3.77* B A AB	2.41 2.22 2.71 2.71 6.51*** AB B A A	2.41 2.22 2.71 2.71 6.51*** AB B A A	2.53 2.35 2.70 2.30 2.37 2.39* AB AB A B AB	2.53 2.35 2.70 2.30 2.37 2.39* AB AB A B AB						
이동	0.85	0.78 0.88 0.88 B A A	0.82 0.86 0.90 1.32 0.82 0.86 0.90 1.32	0.80 0.82 0.84 0.90 1.94 0.80 0.82 0.84 0.90 1.94	0.80 0.82 0.84 0.90 1.94 0.80 0.82 0.84 0.90 1.94	0.83 0.87 0.80 2.19 0.83 0.87 0.80 2.19	0.84 0.77 0.88 0.92 5.11*** AB B A A	0.84 0.77 0.88 0.92 5.11*** AB B A A	0.82 0.83 0.89 0.83 0.84 1.05 0.82 0.83 0.89 0.83 0.84 1.05	0.82 0.83 0.89 0.83 0.84 1.05 0.82 0.83 0.89 0.83 0.84 1.05						
소비 표준 전체	17.56	15.32 19.36 17.44 C A B	16.72 17.99 18.26 1.76 16.72 17.99 18.26 1.76	15.35 17.50 17.40 18.91 4.14** B A A A	15.35 17.50 17.40 18.91 4.14** B A A A	16.64 18.29 16.77 2.74 16.64 18.29 16.77 2.74	16.60 16.06 18.62 19.40 6.10*** B B A A	16.60 16.06 18.62 19.40 6.10*** B B A A	16.81 16.99 19.25 16.45 17.18 2.73* AB AB A B AB	16.81 16.99 19.25 16.45 17.18 2.73* AB AB A B AB						

\*p < .05, \*\*p < .01, \*\*\*p < .001 예시 유의

가구주연령의 경우 40대 가계가 30대이하나 50대 이상 가계에 비해 식생활, 가족여가, 정보생활영역에서 높은 소비표준을 나타내었다. 주생활, 가족위생, 이동영역에서는 40대나 50대이상의 소비표준이 30대이하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라 소비표준의 차이가 나타난 것은 주생활영역밖에 없었는데, 대졸이나 대학원졸의 경우 고졸이하보다 높은 소비표준을 나타내었다. 가구주직업이 노무자인 경우에는 다른 직업에 비해 전체 소비표준과 주생활, 식생활영역의 소비표준이 낮았고, 전문관리직의 경우에는 다른 직업에 비해 식생활영역의 소비표준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수가 4명인 가계는 2~3명인 가계에 비해 정보생활영역의 소비표준이 높게 나타났고, 다른 영역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계소득은 가족여가를 제외한 모든 영역의 소비표준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대체로 250만원이상의 가계가 그 미만의 가계에 비해 높은 소비표준을 갖고 있었다. 주택평수는 30~40평인 경우가 다른 평수 가계에 비해 전체적인 소비표준과 주생활, 가족여가, 정보생활영역에서 높은 소비표준을 갖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른 소비수준과 소비표준의 차이는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소비수준에서의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낸 변인은 가계소득이었고, 소비표준은 가구주연령에 따라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다음으로 가계소득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가계의 소비수준은 재무적 능력에 따라 가장 영향을 많이 받으나, 소비표준은 재무적 능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무엇보다 가구주연령에 따른 가족의 요구나 목표, 문화적 차이를 반영함을 시사한다. 교육수준과 가족수는 가계의 소비수준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으나 소비표준에는 거의 영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주생활영역의 경우에는 가족수를 제외한 모든 변인이 소비수준과 소비표준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다른 영역에서 그리 중요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한 사회문화적 생활양식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보이는 교육수준과 직업, 재무 및 공간적 능력을 나타내는 주택평수가 주생활영역에서 의미있는 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거실이 가정의 사회적 열망이 가장 잘 표현

되는 곳이라는 LauMann과 House(1973)의 가정을 지지하는 것이라 하겠다. 식생활영역의 경우에도 소비수준이 모든 변인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소비표준은 연령과 직업, 소득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어, 부업 또한 거실 못지 않게 주부 자신과 가족,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주된 공간으로 남편의 지위에 따른 주부들의 생활표준에 대한 차별적 가치관이 잘 드러나는 곳이라 간파한 손상희 외 2인(199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 보여진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이러한 차이는 소비수준 및 소비표준에서의 대단히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특히 소비표준의 경우 각 집단간 평균점수의 차이는 대부분 1미만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났다 하더라도 실제 차이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전체적으로 동의하는 소비표준은 매우 확일적이며, 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여겨진다.

### 3. 소비생활양식에 대한 태도

단순·소박한 생활양식에 대한 태도와 소비주의적 성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조사대상 가계는 단순·소박한 생활양식의 모든 문항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편, 소비주의적 성향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웃과 비슷한 정도로, 남편의 지위에 맞게, 집평수에 따라 갖추고 살아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우 중간점수를 상회하는 긍정적인 점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가능하면 갖추어 갖추고 사는 것이 좋다'의 점수는 높은 편으로, 단순·소박한 생활양식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또 그 반대의 인식을 하고 있어, 많은 가계가 물질의 소유에 대한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거나 갈등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단순·소박하게 살고 싶다'의 점수가 더 낮은 것으로 보아, 조사대상 가계의 소비생활양식에 대한 성향은 경제력이 향상될 경우 소비주의적 생활양식, 즉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양식의 반대방향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표 4〉 소비생활양식에 대한 태도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이

분 항	평균	가구주연령			가구주교육수준			가구주직업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F값	F값	F값	노무자	자영업	사무 기술직	전문 관리직			
단순·소박하게 사는 것은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3.78	3.58B	3.85A	3.89A	4.38*	3.78B	3.70B	4.17A	4.44*	3.77	3.90	3.79	3.67	1.16
	3.53	3.39B	3.52AB	3.72A	3.86*	3.52	3.49	3.81	2.07	3.63	3.63	3.49	3.43	1.20
	3.65	3.44B	3.73A	3.76A	5.30**	3.57	3.66	3.84	1.51	3.65	3.69	3.66	3.60	0.22
	3.57	3.40B	3.63A	3.67A	3.94*	3.51	3.58	3.72	1.01	3.60	3.63	3.61	3.47	0.85
	3.67	3.61	3.65	3.77	1.04	3.88A	3.53B	3.71AB	7.18***	4.00A	3.87A	3.62B	3.40B	10.07***
현재 우리 집은 다른 집에 비해 단순, 소박하게 살고 있다.	3.37	3.16B	3.35B	3.63A	7.22***	3.39	3.36	3.33	0.07	3.48A	3.47A	3.44AB	3.17B	2.75*
	3.32	3.34	3.33	3.27	0.24	3.23	3.35	3.48	1.58	3.16	3.28	3.32	3.44	1.55
	3.41	3.34	3.45	3.43	0.58	3.39	3.40	3.50	0.24	3.24	3.43	3.45	3.44	0.92
	3.33	3.26	3.39	3.31	0.81	3.23	3.36	3.52	2.11	3.02B	3.34A	3.28A	3.52A	5.37***
	3.70	3.69	3.74	3.65	0.45	3.68	3.69	3.81	0.41	3.57	3.73	3.64	3.80	1.37

5점 척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약간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p < .05, \*\*p < .01, \*\*\*p < .001 에서 유의

〈표 4〉 소비생활양식에 대한 태도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이(계속)

문항	가족수			가계소득			주택평수						
	2-3명	4명	5명 이상	150만원 미만	150-250만원	250-350만원 이상	20평 미만	20-30평 미만	30-40평 미만	40-50평 이상	F값		
단순·소박하게 사는 것은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3.73	3.78	3.82	3.67	3.71	3.88	3.86	3.69	3.83	3.78	3.86	3.69	0.44
	3.45	3.57	3.54	3.50	3.43	3.68	3.57	3.39	3.64	3.56	3.59	3.35	1.27
	3.60	3.67	3.63	3.42B	3.54B	3.82A	3.82A	3.41	3.78	3.62	3.72	3.78	2.35
	3.53	3.62	3.50	3.61AB	3.43B	3.77A	3.56AB	3.53	3.63	3.60	3.56	3.39	0.63
현재 우리 집은 다른 집에 비해 단순·소박하게 살고 있다.	3.75	3.62	3.71	3.84A	3.72A	3.87A	3.32B	3.84A	3.87A	3.67AB	3.44B	3.08C	7.85***
	3.35	3.37	3.39	3.44AB	3.23B	3.63A	3.29B	3.24	3.53	3.39	3.33	3.20	1.47
	3.31	3.29	3.39	3.33AB	3.19B	3.26B	3.53A	3.26	3.30	3.29	3.58	3.24	1.44
	3.28	3.40	3.55	3.40B	3.27B	3.26B	3.71A	3.25C	3.28C	3.39BC	3.75A	3.67AB	3.93**
소비주의적 성향	3.26	3.36	3.32	3.22B	3.23B	3.22B	3.64A	3.19C	3.26BC	3.29BC	3.53AB	3.67A	3.09*
	3.72	3.69	3.70	3.73	3.62	3.63	3.84	3.75	3.62	3.63	3.84	3.88	1.24

5점척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약간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p < .05, \*\*p < .01, \*\*\*p < .001 에서 유의

이러한 태도 및 성향은 가구주연령, 가계소득과 주택평수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대부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가구주연령에 따라서 보면 대체로 40대나 50대이상의 경우 30대이하의 가계에 비해 단순·소박하게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의하며, 환경문제에 도움이 되고, 가족의 윤리가치관에 맞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단순·소박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좋아 보이고 앞으로 그렇게 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현재의 단순·소박하게 생활하는 정도에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며, 소비주의적 성향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교육수준이 대학원졸인 경우에는 그 이하의 경우에 비해 단순·소박하게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의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실제의 삶에서는 고졸이하인 경우가 단순·소박하게 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소비주의적 성향은 교육수준과 무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단순·소박하게 산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노무자나 자영업의 경우 사무기술직이나 전문관리직에 비해 높았고, 앞으로 단순·소박하게 살고 싶다는 응답에 있어서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구주직업이 노무자인 경우는 다른 직업에 비해 집 평수에 따라 갖추어야 할 것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는 인식에 있어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가족수는 소비생활양식에 대한 태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계소득과 주택평수는 여러 문항에서 그 관련성이 파악되었다. 소득이 250만원 이상의 경우는 그 미만의 경우에 비해 단순·소박하게 사는 것이 환경문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나 350만원이상의 가계는 현재 다른 집에 비해 단순·소박하게 살고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다. 이로써 고소득집단의 경우 인식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이 250-350만원의 가계는 소득이 그보다 적거나 많은 가계에 비해 단순·소박하게 사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가 아니라 앞으로 단순·소박하게 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소득이 350만원이상인 가계는 그 미만의 가계에 비해 소비주의적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

적으로 소득이 적은 가계에 비해 더 많이 '이웃과 비슷한 정도로', '남편의 지위에 걸맞은 정도로', '집평수에 따라' 갖추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택평수에 따라 현재 다른 집에 비해 단순·소박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소비주의적 성향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는데, 대체로 주택평수가 큰 집단이 작은 집단에 비해 남편의 지위와 집평수에 맞게 갖추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다른 집에 비해 단순·소박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소비주의적 성향의 점수가 긍정적이며 대부분의 경우 사회경제적 변인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우리나라 중산층 가계가 공통적으로 생활표준의 기준을 이웃이나 남편의 지위, 주택평수 등에 두고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과시에 두고 있음을 밝힌 손상희 외 2인(1999)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단순·소박한 생활양식에 대한 태도는 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대부분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경우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현재와 장래의 실행 가능성은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나, 태도와 행동간의 불일치를 나타내었다. 이는 많은 가계가 단순·소박한 생활양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도 앞으로 경제력이 좋아지면 재화의 소유와 소비수준의 향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예상하게 하며, 이러한 결과는 네덜란드 가계의 행동을 조사한 Gatersleben과 Vlek(1998)과 매우 일치한다.

〈표 5〉는 소비생활양식에 대한 태도와 소비수준, 소비표준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상관계수의 값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 소비생활양식에 대한 태도와 소비수준, 소비표준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몇몇 영역에서의 소비수준은 단순·소박한 생활에 대한 인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방향이 정(+)적으로, 단순·소박한 생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소비수준이 높아지는 모순된 관계를 보인다. 즉, 단순·소박한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단순하고 소박한 소비수준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이는 태도와 행동간의

〈표 5〉 소비생활양식에 대한 태도와 소비수준, 소비표준과의 상관관계

문항	소비수준					소비표준								
	주생활	식생활	가족	가속	정보 생활	이동	전체	주생활	식생활	가족	가속	정보 생활	이동	전체
	0.02	0.02	-0.01	0.02	0.04	0.17	0.04	-0.03	-0.004	0.001	0.01	0.003	0.01	-0.01
단순·소박하게 사는 것은 경제적으로 유의하다.	0.01	0.05	0.07	0.10*	0.12**	0.16***	0.09*	-0.02	0.02	0.04	0.03	0.02	0.02	0.01
단순·소박하게 사는 것은 우리 가족의 윤리가치관에 맞다.	0.09*	0.06	0.06	0.03	0.09*	0.15***	0.10*	0.06	0.05	0.02	0.04	-0.004	0.01	0.05
단순·소박하게 사는 것은 환경문제에 큰 도움이 된다.	0.08*	0.05	0.05	0.04	0.07	0.12**	0.09*	0.01	0.03	-0.01	0.02	0.02	-0.03	0.02
단순·소박하게 사는 모습은 보면 좋아 보인다.	0.02	-0.003	0.01	0.03	0.03	0.07	0.03	-0.04	-0.04	-0.01	-0.0002	0.01	-0.05	-0.03
현재 우리 집은 다른 집에 비해 단순·소박하게 살고 있다.	0.11*	0.06	0.04	0.12**	0.12**	0.10*	0.12**	0.04	0.03	0.02	0.05	0.06	0.04	0.05
앞으로 단순·소박하게 살고 싶다.	0.08	0.06	0.03	-0.02	-0.001	-0.01	0.05	0.03	0.01	0.01	-0.03	-0.08	0.04	-0.003
이웃과 비슷한 정도로는 갖추고 살아야 한다.	0.003	0.01	-0.02	-0.02	-0.01	-0.05	-0.01	0.01	-0.01	0.03	-0.01	-0.04	0.03	-0.002
남편의 지위에 걸 맞는 정도로 살아야 한다.	0.05	0.07	-0.02	-0.03	0.05	-0.01	0.04	0.06	0.04	0.02	-0.002	-0.01	0.03	0.03
가능하면 갖추어 갖춰야 하는 것이 좋다.	0.03	0.05	-0.002	-0.05	-0.09	0.02	0.02	0.01	-0.01	0.01	-0.04	-0.01	0.03	-0.01

5점 척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약간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p < .05, \*\*p < .01, \*\*\*p < .001에서 유의



불일치로 나타난 위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소비표준은 전 영역에 걸쳐 단순·소박한 생활에 대한 태도나 소비주의적 성향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계들의 현재의 소비수준과 도달하기 위해 갈망하는 소비표준이 무엇이며, 영향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변화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가계는 비교적 동질적인 소비수준 및 소비표준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생활영역에서 재화의 소비수준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가계의 약 80% 이상이 주생활영역의 중앙난방/보일러, 욕조시설, 식탁을 갖추고 있었고, 식생활영역에서는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가족위생영역에서는 진공청소기와 세탁기, 가족여가영역에서는 TV와 비디오, 정보생활영역에서는 컴퓨터와 휴대전화, 이동영역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비표준은 소비수준에 비해 전반적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80% 이상의 가계가 필수재 혹은 열망재로 꼽은 재화는 승용차, 세탁기, 냉장고, 중앙난방/보일러, TV, 컴퓨터로, 이는 우리나라 가계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비표준을 구성하는 재화임을 시사한다. 승용차와 컴퓨터에 대한 필수재 혹은 열망재로서의 높은 인식은 시간절약적 이동을 중시하는 현대적이고 개인지향적인 생활양식과 정보사회에 대한 인식이 우리 사회에 보편적으로 확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특징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가구주연령, 교육수준, 가족수, 가계소득, 직업 및 주택평수에 따라 보유여부 및 열망정도에 차이가 나타나, 보편적 소비수준과 소비표준이 존재하는 한편, 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른 소비수준과 소비표준의 차이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체로 가계소득과 가구주연령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행동이 주로 재무적 능력과 연령에 따른 문화적 가치관 혹은 가족요구의

차이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직업의 사회문화적 규범체계로서의 영향력을 밝힌 Suranyi-Unger (1977)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주생활과 식생활영역을 제외하고는 직업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간 계층화의 정도가 미미하며 직업보다 소득, 즉 경제력이 소비생활양식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 내에서 더욱 확실적인 소비표준의 존재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가계는 단순·소박한 생활양식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계소득이 높고 주택평수가 큰 가계의 경우 단순·소박한 생활이 환경문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집에 비해 단순·소박하게 살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웃과 비슷한 정도로, 남편의 지위에 맞게, 집평수에 따라 갖추고 살아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고, 앞으로 단순·소박하게 살고 싶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를 나타내어,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은 하고 있는 반면, 그러한 인식이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가구주연령이 40대 혹은 50대 이상의 경우 30대 미만의 가계에 비해 이런 점에서 더 바람직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수준과 소비표준은 비교적 동질적이고 보편적인 기본적 수준을 공유하고 있으나, 주생활 및 식생활영역, 그리고 몇몇 고급재화에 대해서는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보유율과 필수재 혹은 열망재로서의 인식을 달리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비표준은 소비수준에 비해 이러한 차이가 크지 않아, 현재 경제력이나 다른 요인으로 인해 소비수준이 동일하지는 않아도 우리나라 가계가 공통적으로 열망하는 소비표준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단순·소박한 생활양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가계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거나 평가하고 있지만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가계의 소비수준이 더 높은 모순된 관계가 파악되었다. 즉, 많은 소비자들은 단순·소박한 생활양식이 경제와 환경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도 그것을 실천하고 싶어하지는 않는데, 그 이유로 가장 큰 것이 대부분의 가계가 공유하고 있는 이웃, 남편의 지위, 주택평수 등에 따른 타인지향적인 소비주의적 성향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단순히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으로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양식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보이며, 사회전체적으로 타인에 대한 경쟁심리나 물질주의적 사고방식, 집단주의적 사고방식 등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소비와 환경간의 밀접한 상호관계를 전제로,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의 달성을 위해서는 가계의 소비수준 및 표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가정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지속가능한 소비의 실현을 위한 소비자운동이나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거나 적합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대상집단이나 내용의 설정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단순·소박한 생활양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행동으로 연결되도록 실천 가능한 전략을 찾아내고 알려주어 동기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미 필수재나 열망재로 인식되고 있는 재화의 소유를 포기하거나 줄이기는 어렵지만 작은 것, 중고품의 선택이나 새로운 재화의 구매 대신 가지고 있는 재화의 활용, 개별적 소유 대신 가족공동 혹은 사회공동 소유의 장려 등은 상대적으로 실천 가능할 수 있다. 높은 소비수준의 달성이 풍성한 삶을 위해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만, 그러한 소비수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그 의미와 내용을 재화의 소유중심에서 보다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키며 그러한 생활양식의 의미를 발견하고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 접수일 : 2001년 7월 14일

□ 심사완료일 : 2001년 9월 17일

### 【참 고 문 헌】

- 강성진(1996). 지속가능한 소비의 이념과 전략. '96 한국환경보고서, 107-130. 녹색연합.
- 김기옥(1997). 우리나라 소비자가 추구하는 생활표준: 질적 접근법을 이용한 소비자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 15-32.
- 손상희(1997a). 환경보전을 위한 소비자 역할과 실천적 접근방법에 관한 고찰. 한국생활과학회지 6(1), 41-53.
- 손상희(1997b). 소비사회와 청소년 소비문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341-353.
- 손상희·박정현·천경희(1999). 중산층 소비자의 생활표준과 그 환경적 함의. 소비자학연구 10(1), 99-118.
- 이득연(1991). 녹색 소비자 운동의 현황과 전략. 소비생활연구 8, 43-53.
- 윤정혜·성영애(1998). 한·일·미가계의 소비구조 비교를 통한 한국가계의 소비표준 설정 방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155-168.
- 홍두승(1992). 사회조사분석. 서울: 다산출판사.
- Baudrillard, J.(1970). 이상물 역(1992). 소비의 사회: 그 신화와 구조. 서울: 문예출판사.
- Davis, J.S.(1945). Standards and content of living. *American Economic Review* 35, 1-15.
- Durning, A.T.(1994). *How much is enough?* 구자건 역(1994). 소비사회의 극복. 서울: 도서출판 따님.
- Elgin, D.(1993). *Voluntary simplicity*. 김승욱 역(1999). 소박한 삶의 철학. 서울: 바다출판사.
- Firat, A.F.(1978). *The social construction of consumption patterns*. Ph.D. Dissertation, Northwestern University.
- Firat, A.F.(1987). Towards a deeper understanding of consumption experiences: The underlying dimensions. In Wallendorf, Melanie, & Anderson (Ed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4, 342-346. Association for Consumer Research.
- Gatersleben, B. & Vlek, Ch.(1998). Household consumption, quality of life, and environmental impacts: A psychological perspective and empirical study. In Noorman, K.J. & Uiterkamp,
- 강성진(1996). 지속가능한 소비의 이념과 전략. '96

- T.S. (Eds.), *Green households? Domestic consumers, environment, and sustainability*. London: Earthscan Publications Ltd., 141-183.
- Hefferan, C.(1987). Family budget guidelines. *Family Economics Review* 4, 1-9.
- Hoyt, E.E.(1938), *Consumption in our society*. New York: McGraw-Hill.
- Kyrk, H.(1923). *A theory of consumption*. Boston: Houghton Mifflin.
- Kyrk, H.(1933). *Economic problems of the family*. New York: Harper & Brothers.
- Laumann, E.O. & House, J.S.(1973). Living room styles and social attributes: The patterning of material artifacts in a modern urban community. In Kassarjian, H.H. & Thomas, S.R.(Eds.), *Perspectives in Consumer Behavior*, 430-440. IL: Scott, Foresman.
- McCracken, G.(1988). *Culture and consumption*. Bloomington, IL: Indiana University Press.
- Nicosia, F. M. & Mayer, R. N.(1976). Toward a sociology of consump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 65-75.
- Nolen, T.P.(1994). *Choosing voluntary simplicity as a lifestyle*.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Greensboro.
- Noorman, K.J., Biesiot, W., & Schoot Uiterkamp, A. J.M.(1998). Household metabolism in the context of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al quality. In Noorman, K.J. & Uiterkamp, T.S. (Eds.), *Green households? Domestic consumers, environment, and sustainability*. London: Earthscan Publications Ltd., 7-34.
- Spina, A.C.(1998). *Voluntary simplicity: A new social movement in response to the technological invasion of the lifeworld*. Ph.D. Dissertation, The Fielding Institute.
- Suranyi-Unger, T., Jr.(1977). *Identification of standard classes in the United States* (NSF/RA 77-0205). National Science Foundation, Research Applied to National Needs.
- Uusitalo, L.(1982). Environmental impact of changes in consumption styles. *Journal of Macromarketing Fall*, 16-30.
- Veblen, T.(1934).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정수용 역(1978). 유한계급론. 서울: 광민사.